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손 은 정†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에게 문화보편적 가치(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보수주의, 자기초월), 문화특수적 가치(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겸손),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본 결과, 자기고양, 정서적 자기통제, 자기초월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별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자기고양과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연령이 조절하였다. 자기고양이 높고 연령이 낮은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셋째, 규범에 대한 동조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연령과 성별이 조절하였다.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고 연령이 낮은 남성의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넷째, 집단주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였다. 집단주의가 높아질수록 남성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여성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째, 겸손과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였다. 겸손이 높은 여성의 경우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치, 의사소통 방식, 연령, 성별, 문화적 가치

* 이 연구는 2021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손은정,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 053-580-5402, E-mail : ejsohn@km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우리나라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격차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과 성별 갈등이 커지고 있다(박재현, 전은주, 2016; 손해용, 2021; 한상근 외, 2018). 실제로 직장 및 사회에서의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72.2%에 달했으며(남궁은하, 2021), 직장 내 의사소통 갈등 중 성별 갈등이 2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현, 전은주, 2016). 특히, MZ 세대라는 20~30세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업 내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노조를 형성하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류중은, 2021), 관리자가 남성이고 여성이 부하직원인 경우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동, 2019). 이러한 갈등은 세대 간 및 성별 간 가치의 충돌이나 소통의 부족, 또는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원인이 될 수 있다(남궁은하, 2021; 이수인, 2010; 정순돌 외, 2016; 이동원, 조성남, 1991).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통합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옳은 것이나 바람직한 것 등에 관한 기본적인 신념을 의미한다(나은영, 차유리, 2010; Schwartz et al., 2012). 가치는 세상에 대한 세부적인 태도를 구성하며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Brosch et al., 2011). 사람들은 가치에 따라 태도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치에 의해 형성된 태도나 동기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chwartz et al., 2012; Boer & Boehnke, 2016).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가치는 학습태도 및 동기, 행복감, 성격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

으며, 일의 세계에서나 대인관계에서 행동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22; 김은예, 박용한, 2021; Schwartz et al., 2012).

특히 Schwartz는 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인간 가치의 보편적 심리적 구조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Schwartz, 1992, 1994). Schwartz의 초기 모델에서는 10개의 보편적인 기본가치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Schwartz, 1992, 1994). 최근 제시한 모델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총 19개의 기본가치를 제시하였고(Schwartz et al., 2012)(표 1), 이 기본가치들은 서로 양립하거나 대립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보편주의라는 가치는 박애라는 가치와 함께 양립할 수 있지만, 권력이라는 가치와는 대립되는 가치이다.

이러한 19개의 기본가치들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보수주의, 자기고양, 그리고 자기초월이라는 4개의 상위가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표 1). 즉, 자기주도-사고, 자기주도-행동, 자극추구, 그리고 쾌락추구라는 기본가치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상위가치에 포함되며, 성취와 권력-지배, 권력-자원은 자기고양이라는 상위가치에 포함된다. 또한, 동조-규칙, 동조-대인적, 안전-개인적, 안전-사회적, 그리고 전통은 보수주의라는 상위가치에 포함되며, 박애-돌봄, 박애-신뢰성과 보편주의-자연, 보편주의-관심, 그리고 보편주의-관용은 자기초월이라는 상위가치에 포함된다. Schwartz et al.(2012)에 따르면 겸손은 보수주의와 자기초월이라는 상위가치에 동시에 포함되며, 체면은 자기고양과 보수주의라는 상위가치에 동시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척도 타당화 연구 결과 겸손과 체면 모두 보수주의에 포함되었다(박용한 외, 2019).

또한, 상위가치는 사회적 초점 대 개인적

표 1. Schwartz 등(2012)의 상위가치 및 기본가치와 개념적 정의

상위가치	기본가치	개념적 정의 (동기적 목적의 관점에서의 정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주도-사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유
	자기주도-행동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자극추구	흥분, 새로움, 그리고 변화 추구
	쾌락추구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추구
자기고양	성취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공
	권력-지배	사람들에게 통제를 행사하는 힘
	권력-자원	물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에 관해 통제를 행사하는 힘
보수주의	체면	공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모욕을 피할 수 있는 안정감과 힘
	안전-개인적	자신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환경 내에서의 안전
	안전-사회적	더 넓은 사회에서의 안전과 안정
	전통	문화적, 가정적, 그리고 종교적 전통의 유지와 보존
	동조-규칙	규칙, 규범 및 공식적 의무에 대한 순응
	동조-대인적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피함
	검손	보다 큰 틀에서 자신이 미미하다는 인식
자기초월	보편주의-자연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
	보편주의-관심	모든 사람의 평등, 정의 및 보호에 대한 헌신
	보편주의-관용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과 이해
	박애-돌봄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행복에 대해 헌신
	박애-신뢰성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믿을만하고 신뢰로운 사람이 되는 것

초점, 그리고 불안에 기반한 가치 대 성장에 기반한 가치라는 두 가지 기저차원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기저차원을 중심으로 상위 가치를 구분해 보면, 보수주의와 자기초월은 사회적 초점에 기반한 가치이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은 개인적 초점에 기반한 가치이다. 또한 자기초월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은 성장에 기반한 가치이며, 보수주의와 자기고양은 불안에 기반한 가치이다.

이와 같이 Schwartz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Schwartz, 1992, 1994). 그런데, 실제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보편적 심리적 구조로 제시했던 가치가 나타났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결과들도 있었다(Schwartz et al., 2001).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문화보편적 가치 외에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문화특수적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특수적 가치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어져 온 변인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를 들 수 있다(박혜경, 김상아, 2018; Young et

al., 2021). 개인주의가 높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집단주의가 높은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호의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국은 체면과 권위 등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왔으며(박혜경, 김상아, 2018; 최상진 외, 2000; Holtgraves, 1997), 한국 성인의 문화특수적 가치에 대한 연구들은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서신화 외 2016; 장수지 외, 2014; 전해빈, 박혜경, 2018). 즉, 한국인은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억울함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서신화 외, 2016), 집단주의는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수지 외, 2014).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적 성향을 나타내는 가치에는 집단주의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Kim, Li, 그리고 Ng(2005)가 개발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겸손의 다섯 가지 요인이 아시아의 문화특수적 가치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집단주의란 개인의 요구나 이익보다 집단의 요구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규범에 대한 동조란 사회적 규범, 기대, 가치, 신념을 수용하고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정서적 자기통제란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이란 가족을 실망시키

지 않기 위해서 성공해야 하며 자신의 성취를 통해 부모와 가족에게 명예와 성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마지막으로, 겸손이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으스스대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Kim et al., 2005).

가치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문화보편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Schwartz et al.(2012)이 제시한 기본가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은예, 박용한, 2021; 서지영, 정영숙, 2012; Boer & Boehnke, 2016; Schwartz et al., 2001). 또한, 문화특수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해왔다(장수지 외, 2014; 전해빈, 박혜경, 2018).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문화특수적 가치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특수적 가치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집단주의 외에 Kim et al. (2005)이 제시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들이 가지는 가치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문화보편적 가치와 함께 문화특수적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개인은 사회화되어가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개인 안에 내재된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배워가게 된다(Gudykunst et al., 1996). 즉, 개인이 고수하는 가치는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 가치는 의사소통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low-context communication)을 사용하는 반면, 집단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high-context communication)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n, & Kameoka, 2019; Gudykunst et al., 1996).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말에서 표현되는 내용 그대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개방적으로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이 표현되는 상황이나 맥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의 의미에 대해 추론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감정이나 필요,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집단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Holtgraves, 1997).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의 하위요인들이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자기통제라는 가치가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을 덜 사용하고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Park & Kim, 2008). 그 외에도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고통이나 학대 경험에 대해 개방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 & Danish, 2010; Foynes et al., 2014).

한국인들의 가치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치나 의사소통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루어왔다. 즉, 가치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단주의가 더 강해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박혜경, 김상아, 2018), 일/직업 가치는 베이비붐세대(1950~1964년생)가 가장 높은 데 반해, 개인/여가 가치와 성공(부)/인정 가치는 MZ세대(1980~2007년생)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22).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집단주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인, 2010).

또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결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과 상황을 고려하며 갈등을 회피함으로 침묵하는 경향이 높았다(박재현, 이유미, 2013).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하려는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영, 2017).

이와 같이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김수정, 2022; 박재현, 이유미, 2013; 박혜경, 김상아, 2018), 국외 연구에서와 같이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거나(Foynes et al., 2014; Park & Kim, 2008), 이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으며, 한국 성인이 고수하는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가치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1979년, 1998년, 2010년에 걸쳐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은영, 최유리, 2010).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의 집단주의가 서양의 국가들보다 더 높지 않았다(Oyserman et al., 2002).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먼저 한국 성인의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연령과 성별이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자기관과 연령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단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자기주장성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가치와 연령이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해진, 이동훈, 2021). 즉, 집단주의나 규범에 대한 동조와 같은 문화특수적 가치가 높은 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라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이 높은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박재현, 이유미, 2013), 가치가 연령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치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문화보편적 가치나 문화특수적 가치의 일부분만을 연구한 한계가 있었

다(장수지 외, 2014; 전해빈, 박혜경,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를 포괄하여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성별, 문화보편적·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연령, 성별, 문화보편적·문화특수적 가치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문화보편적·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가? 둘째, 문화보편적·문화특수적 가치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20대 122명, 30대 126명, 40대 128명, 50대 123명, 총 5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39.33세 ($SD=10.77$)이었으며, 최소 20세부터 최대 59세까지 분포하였다. 성별은 남자 50.2%(251명), 여자 49.8%(249명)였으며, 학력은 대졸이 67.2%(336명)로 가장 많았고, 고졸 14%(70명), 대학원 졸 10.4%(52명), 대학교 재학 중 6.2%(31명), 대학원 재학 중 2%(10명), 기타(대학교 자퇴)

0.2%(1명)로 나타났다. 가계월소득은 850만원 이상 16.8%, 751~850 10.2%, 651~750만원 12.2%, 551~650만원 11.4%, 451~550만원 15.4%, 351~450만원 13.2%, 251~350만원 11%, 151~250만원 6.2%, 150만원 이하 3.6%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문화보편적 가치

문화보편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Schwartz et al.(2012)의 가치 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PVQ)를 사용하였다. Schwartz (2003)의 가치 묘사 질문지는 최정원과 이영호 (2014)에 의해 한국에서 타당화가 이루어졌으며, 9개의 가치를 알아보는 질문들이 각각 2개씩 포함되었으며 보편주의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겸손과 체면에 대해 새로운 문항들이 추가된 가치 묘사 질문지(Schwartz et al., 2012)를 전혜빈과 박혜경(2018)이 번역 및 재구성하여 사용한 총 25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의 범위는 25점부터 150점까지이다.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이 사람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고양 ‘이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깊은 인상을 주기를 좋아한다.’, 보수주의 ‘이 사람은 우리 문화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초월 ‘이 사람은 이웃의 다른 사

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이웃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돕고 싶어한다.’를 들 수 있다.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 .73, 자기고양 .66, 보수주의 .66, 자기초월 .67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83이었다.

문화특수적 가치

문화특수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Asian Cultural Values Scale)를 사용하였다.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척도는 Kim et al.(1999)이 처음 개발하였으며, 이를 다시 Kim et al.(2005)이 다차원적으로 수정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가치 척도(Asian American Values Scale-Multidimensional: AAVS-M)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아시아계 미국인 가치 척도를(Kim et al., 2005) 손은정(201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총 42문항으로 집단주의(7문항), 규범에 대한 동조(7문항), 정서적 자기통제(8문항),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14문항), 겸손(6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의 범위는 42점부터 29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집단주의 ‘집단의 안녕은 개인의 안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규범에 대한 동조 ‘사회적 규범, 기대, 관심을 인식하고 지켜야 한다.’, 정서적 자기통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된다.’,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개인의 성공과 지위는 가족의 성공과 지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겸손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칭찬해서는 안된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집단주의 .73, 규범에 대한 동조 .71,

정서적 자기통제 .57,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91, 겸손 .60, 그리고 전체 척도는 .84로 나타났다.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저, Holtgraves(1997)이 개발한 간접적 대화방식 척도(Conversational Indirectness Scale: CI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대방이 한 말의 간접적 의미를 해석(interpretation)하는 것과 관련된 10 문항과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생산(production)과 관련된 9 문항,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의 범위는 19점부터 13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적 대화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간접적 의사소통-해석 '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통해 그의 동기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간접적 의사소통-생산 '나는 나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할 때가 많이 있다.'를 들 수 있다. Holtgraves(1997)에서 내적 신뢰도는 전체 .90, 해석 .87, 생산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전체 .85, 해석 .81, 생산 .75이었다.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Gudyknust(2001)이 개발하였고, Park와 Kim(2008)이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방식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7개의 하위 요인들 중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는 극적(5문항), 논쟁적(5문항), 개방적(4문항) 의사소통 방식의 세 개 하위요인들만 사용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 범위는 14점부터 9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극적 의사소통 방식 '나는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과장하여 말한다.', 논쟁적 의사소통 방식 '나는 논쟁에서 매우 정확한 의미를 주장한다.', 그리고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 '나는 매우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사람이다.'를 들 수 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검사에서 .85, Bartlett의 유의성 검증은 .001이하로 나타나 표본적합성이 성립하였고, 요인부하량은 .27~.70으로 나타났으며 총 분산의 48.50%를 설명하였다. Park와 Kim(2008)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극적인 의사소통 방식 .73, 논쟁적 의사소통 방식 .80,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 .6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극적 의사소통 방식 .66, 논쟁적 의사소통 방식 .67,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 .52, 전체 전체 .81이었다.

분석방법

첫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 예비분석으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연령, 성별, 문화보편적 및 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과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선택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문화보편적 및 문화특수적 가치와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연령과 성별이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3을 이용하여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성별은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의 절대값이 왜도가 < 3이고 첨도가 < 10 이므로 자료가 정상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다(Kline, 2011).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과는 겸손($r=-.12, p<.01$)을 제외한 모든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들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r=.10, p<.05 \sim r=.26, p<.001$).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과는 성별($r=-.13, p<.01$), 정서적 자기통제($r=-.14, p<.01$), 겸손은($r=-.25, p<.001$)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연령과 집단주의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그 외의 문화보편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5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02												
3	-.05	-.19***											
4	-.09*	-.21***	.43***										
5	.06	.06	.35***	.25***									
6	-.04	.09	.44***	.16***	.59***								
7	-.11*	.22***	-.03	.03	.19***	.25***							
8	.11*	.09*	.11*	.08	.44***	.34***	.28***						
9	-.13**	.08	-.13**	-.06	.08	.11*	.37***	.21**					
10	-.06	.13**	.11*	.38***	.32***	.15**	.29***	.25**	.26***				
11	-.10*	.21***	-.25***	-.57***	-.09*	.05	.03	-.07	.19***	-.34***			
12	-.09	-.07	.10*	.26***	.18***	.17***	.15**	.16**	.19***	.21***	-.12**		
13	-.13**	-.04	.41***	.38***	.23***	.23***	.05	.18***	-.14**	.20***	-.25***	.22***	
평균	0.50	39.33	4.02	3.50	4.18	4.15	3.72	5.16	4.03	4.11	3.81	4.29	4.24
표준편차	0.50	10.77	0.78	0.89	0.55	0.75	0.78	0.64	0.63	0.97	0.81	0.64	0.69
왜도	0.00	0.00	0.03	-0.02	0.04	-0.11	-0.26	-0.05	-0.19	-0.38	0.17	-0.10	-0.10
첨도	-2.01	-1.18	-0.06	-0.18	0.52	0.19	0.42	0.07	0.53	0.33	0.20	0.92	0.26

주. * $p<.05$, ** $p<.01$, *** $p<.001$ 1 성별, 2 연령, 3 변화에 대한 개방성, 4 자기고양, 5 보수주의, 6 자기초월, 7 집단주의, 8 규범에 대한 동조, 9 정서적 자기통제, 10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11 겸손, 12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13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들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18, p<.001 \sim r=.41, p<.001$). 평균을 살펴보면, 문화보편적 가치에서는 보수주의의 평균($M=4.18, SD=0.55$)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특수적 가치에서는 규범에 대한 동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M=5.16, SD=0.64$).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문화보편적 가치(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보수주의, 자기초월), 그리고 문화특수적 가치(집단주의, 규범에 대한 동조,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 정서적 자기통제, 겸손)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단계적 선택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공차 한계는 .63~.99였으며, 분산 팽창지수(VIF)는 1.00~1.60 였다. 중다회귀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고양($\beta=.26, p<.001$), 정서적 자기통제($\beta=.19, p<.001$), 자기초월이($\beta=.11, p<.01$)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기고양, 정서적 자기통제, 그리고 자기초월이라는 가치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beta=.27, p<.001$), 자기고양($\beta=.23, p<.001$), 규범에 대한 동조가($\beta=.18, p<.001$) 정적으로 유의하게, 정서적 자기통제($\beta=-.15, p<.001$)와 성별($\beta=-.14, p<.01$)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자인 경우,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함을 보여준다.

표 3.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N=500)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β	R^2	F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자기고양	.19	.03	.26***	.12	23.36***
	정서적 자기통제	.20	.04	.19***		
	자기초월	.10	.04	.11**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변화에 대한 개방성	.24	.04	.27***	.27	36.40***
	자기고양	.18	.03	.23***		
	규범에 대한 동조	.19	.04	.17***		
	정서적 자기통제	-.16	.04	-.15***		
	성별	-.19	.05	-.14**		

주. ** $p<.01$, *** $p<.001$

가치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가치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뒤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고양과 연령의 상호작용 항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1, p<.05$). 연령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절변인의 특정 값(조절변수의 ± 1 표준편차)에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정선호, 서동기, 2016), 모든 연령에서 유의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효과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고양과 연령이 $\pm 1SD$ 값일 때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의 값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자기고양이 높고 연령이 낮은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범에 대한 동조와 연령, 그리고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1, p<.05$).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남성은 모든 연령에서 유의하였으나 여성은 높은 연령의 경우에만 유의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범에 대한 동조와 연령이 $\pm 1SD$ 값을 나타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

식의 값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고 연령이 낮은 남성인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가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뒤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5, p<.05$). 성별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주의가 $\pm 1SD$ 값일 때 남성과 여성의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의 값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남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겸손과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16, p<.05$). 성별의 조절효과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또한

표 4. 가치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N=500)

예측변인	종속 변인: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종속 변인: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			
	B	t	R ²	F		B	t	R ²	F
변화에 대한 개방성(a)	.09	1.97			자기고양(a)	.14	3.37**		
연령(b)	-.03	-.63			연령(b)	.00	-.02		
성별(c)	-.10	-1.76			성별(c)	-.06	-1.08		
상호작용항(a×b)	-.04	-.92	.02	1.68	상호작용항(a×b)	-.11	-2.60*	.09	6.86***
상호작용항(a×c)	-.06	-1.01			상호작용항(a×c)	.05	.81		
상호작용항(b×c)	-.01	-.19			상호작용항(b×c)	-.01	-.21		
상호작용항(a×b×c)	.04	.60			상호작용항(a×b×c)	.08	1.41		
보수주의(a)	.14	3.66**			자기초월(a)	.14	3.61**		
연령(b)	-.05	-1.28			연령(b)	-.05	-1.30		
성별(c)	-.13	-2.26*			성별(c)	-.11	-1.93		
상호작용항(a×b)	-.03	-.75	.05	3.72**	상호작용항(a×b)	-.05	-1.27	.05	3.92**
상호작용항(a×c)	-.05	-.89			상호작용항(a×c)	-.07	-1.28		
상호작용항(b×c)	.00	.03			상호작용항(b×c)	.01	.11		
상호작용항(a×b×c)	.01	.26			상호작용항(a×b×c)	.01	.14		
집단주의(a)	.08	1.98			규범에 대한 동조(a)	.17	4.41***		
연령(b)	-.07	-1.66			연령(b)	-.07	-1.66		
성별(c)	-.08	-1.29			성별(c)	-.15	-2.58*		
상호작용항(a×b)	.06	1.81	.05	3.57**	상호작용항(a×b)	-.01	-.23	.06	4.80**
상호작용항(a×c)	.08	1.40			상호작용항(a×c)	-.11	-1.94		
상호작용항(b×c)	-.02	-.27			상호작용항(b×c)	.00	.01		
상호작용항(a×b×c)	-.07	-1.13			상호작용항(a×b×c)	.11	2.01*		
정서적 자기통제(a)	.08	1.94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a)	.13	2.92***		
연령(b)	-.06	-1.35			연령(b)	-.05	-1.34		
성별(c)	-.08	-1.45			성별(c)	-.11	-1.89		
상호작용항(a×b)	.00	.05	.05	3.67**	상호작용항(a×b)	.00	.08	.06	4.68**
상호작용항(a×c)	.07	1.16			상호작용항(a×c)	.04	.64		
상호작용항(b×c)	.01	.22			상호작용항(b×c)	-.02	-.40		
상호작용항(a×b×c)	-.01	-.10			상호작용항(a×b×c)	.04	.76		
결손(a)	-.04	-1.04							
연령(b)	-.04	-1.03							
성별(c)	-.11	-1.84							
상호작용항(a×b)	.08	2.03	.04	2.61*					
상호작용항(a×c)	-.06	-1.04							
상호작용항(b×c)	.02	.33							
상호작용항(a×b×c)	-.10	-1.74							

주. *p<.05, **p<.01, ***p<.001

표 5. 자기고양과의 상호작용에서 연령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연령	Effect	SE	t	LLCI	ULCI
-1SD	.28	.05	5.57***	.18	.37
Mean	.19	.03	5.94***	.13	.25
+1SD	.11	.05	2.50*	.02	.20

주.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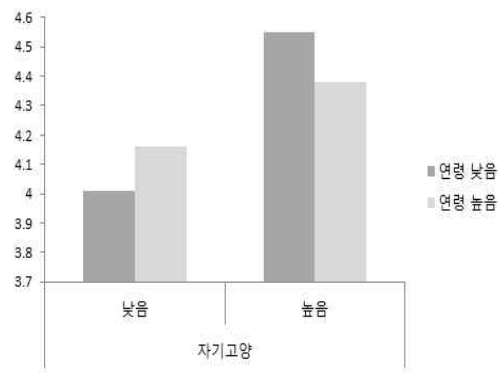


그림 1.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자기고양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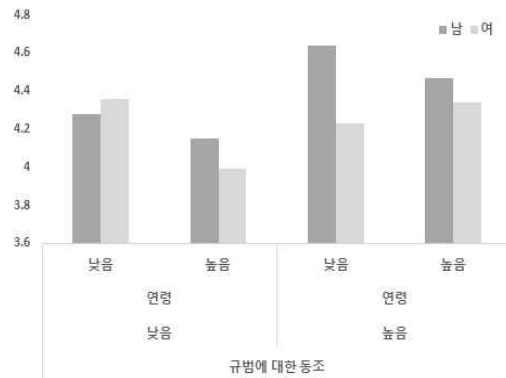


그림 2.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규범에 대한 동조와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겸손이 $\pm 1SD$ 값일 때 남성과 여성의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의 값을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여성은 겸손이 높은 경우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규범에 대한 동조와의 상호작용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연령	성	Effect	SE	t	LLCI	ULCI
-1SD	남성	.18	.06	3.16***	.02	.21
-1SD	여성	-.06	.06	-1.09	-.10	.10
Mean	남성	.17	.04	4.37***	.10	.25
Mean	여성	.06	.04	1.44	-.03	.14
+1SD	여성	.16	.06	2.69*	.12	.32
+1SD	남성	.17	.07	2.56*	-.01	.20

주. * $p < .05$, *** $p < .001$

표 7. 가치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

(N=500)

예측변인	종속 변인: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종속 변인: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				
	B	t	R ²	F	B	t	R ²	F	
변화에 대한 개방성(a)	.30	6.76***			자기고양(a)	.20	4.68***		
연령(b)	-.01	-.29			연령(b)	-.01	-.25		
성별(c)	-.15	-2.64*			성별(c)	-.12	-2.06*		
상호작용항(a×b)	-.3	-.71	.19	16.32***	상호작용항(a×b)	-.02	-.41	.17	13.90***
상호작용항(a×c)	-.02	-.39			상호작용항(a×c)	.10	1.78		
상호작용항(b×c)	.08	1.36			상호작용항(b×c)	.07	1.22		
상호작용항(a×b×c)	.01	.11			상호작용항(a×b×c)	.05	.89		
보수주의(a)	.22	5.24***			자기초월(a)	.20	4.73***		
연령(b)	-.07	-1.73			연령(b)	-.08	-1.87		
성별(c)	-.20	-3.43**			성별(c)	-.17	-2.82**		
상호작용항(a×b)	-.05	-1.23	.09	6.98***	상호작용항(a×b)	-.01	-.31	.08	6.08***
상호작용항(a×c)	-.12	-2.01			상호작용항(a×c)	-.08	-1.32		
상호작용항(b×c)	.06	1.03			상호작용항(b×c)	.07	1.25		
상호작용항(a×b×c)	.12	1.92			상호작용항(a×b×c)	.01	.15		
집단주의(a)	.09	2.23*			규범에 대한 동조(a)	.17	4.25**		
연령(b)	-.08	-1.86			연령(b)	-.09	-2.02		
성별(c)	-.17	-2.76*			성별(c)	-.22	-3.57**		
상호작용항(a×b)	.02	.64	.03	2.41*	상호작용항(a×b)	-.06	-1.44	.07	5.19***
상호작용항(a×c)	-.15	-2.33*			상호작용항(a×c)	-.08	-1.28		
상호작용항(b×c)	.10	1.55			상호작용항(b×c)	.08	1.38		
상호작용항(a×b×c)	-.01	-.11			상호작용항(a×b×c)	.06	.95		
정서적 자기통제(a)	-.06	-1.22			성취를 통한 가족의 인정(a)	.16	3.50***		
연령(b)	-.06	-1.32			연령(b)	-.07	-1.71		
성별(c)	-.20	-3.27**			성별(c)	-.18	-3.02***		
상호작용항(a×b)	.03	.63	.05	3.68**	상호작용항(a×b)	.00	-.09	.07	5.36***
상호작용항(a×c)	-.09	-1.50			상호작용항(a×c)	-.03	-.46		
상호작용항(b×c)	.06	1.01			상호작용항(b×c)	.05	.77		
상호작용항(a×b×c)	-.06	-.94			상호작용항(a×b×c)	.11	1.77		
검손(a)	-.11	-2.44*							
연령(b)	-.04	-.99							
성별(c)	-.20	-3.34**							
상호작용항(a×b)	.03	.77	.10	8.13***					
상호작용항(a×c)	-.16	-2.58*							
상호작용항(b×c)	.10	1.65							
상호작용항(a×b×c)	-.06	-.98							

주. *p<.05, **p<.01, ***p<.001

표 8. 집단주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성별	Effect	SE	t	LLCI	ULCI
남성	.10	.06	1.92	-.00	.21
여성	-.04	.06	-.67	-.17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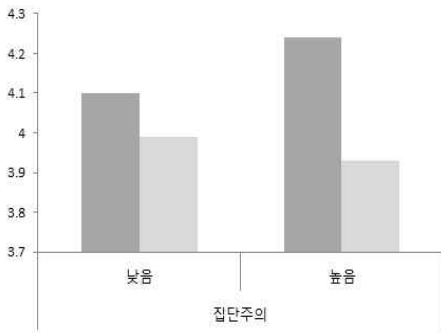


그림 3.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집단주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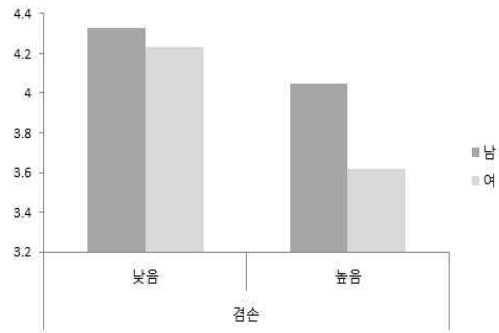


그림 4.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겸손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표 9. 겸손과의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성별	Effect	SE	t	LLCI	ULCI
남성	-.17	.05	-3.06**	-.27	-.06
여성	-.37	.05	-6.94***	-.47	-.26

주. ** $p < .01$, *** $p < .001$

논 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와 성별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박재현, 전은주, 2016; 손해용, 2021; 한상근 외, 2018).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령대나 성별에 따른 가치와 의사소통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으나(박혜경, 김상아, 2018; 이현영,

2017), 가치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알아보지는 못하였으며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와 의사소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가치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과 성별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자기고양, 정서적 자기통제, 자기초월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 정서적 자기통제, 성별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정서적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적게 사용한다는 결과는, 정서적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덜 사용하고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개방적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Park & Kim, 2008). 또한, 자기초월 및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자기초월이 사회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가치이며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개인에 초점을 둔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Schwartz et al., 2012),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집단주의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개인주의가 높을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Chin, & Kameoka, 2019; Gudykunst et al., 1996).

이에 반해 개인에 초점을 둔 가치인 자기고양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나 전통적 가치에 속하는 규범에 대한 동조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지 못한 결과이다(Chin, & Kameoka, 2019; Gudykunst et al., 1996).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자기고양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예측한 결과에 대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다(Barkhina, 2019; Chin, & Kameoka, 2019). 즉,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집단주의적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황과 관계를 중시하는 맥락 중심적 대화를 선호하는 편이다(김장이, 2006; 박혜경, 김상아, 2018).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러 가치들 중 보수주의와 규범에 대한 동조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한국 사회가 아직은 전통적인 가치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계와 맥락 중심의 사회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맥락이나 상황을 중시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높을수록 관계와 맥락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어 내기 위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규범에 대한 동조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맥락과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또는 상대방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Gao, 1998). 따라서, 자신이 속하지 않은 그룹(out-group)의 사람과 대화하거나 지위가 더 낮은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으면 자신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사람이거나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의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으면 오히려 직접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줄어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해서 다양한 경우가 혼재되었기 때문에 규범에 대한 동조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규범에 대한 동조가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벗어나려는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연구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이현영, 2017).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보편적 가치 중 자기고양은 연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고 자기고양이 높은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연령이 높은 경우에도 성공과 권력을 얻기 위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연령이 낮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의 이면적 의미에 대해 추론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범에 대한 동조는 연령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고 연령이 낮은 남성인 경우 고-

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규범에 대한 동조는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는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아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든 한국 성인들이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낮은 남성의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은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가 높을수록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는 이전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자기관이 높은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주장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김해진, 이동훈, 2021). 즉,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를 고수하느냐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상호의존적 자기관이나 규범에 대한 동조와 같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간접적 의미 추론이나 간접적 표현방식과 같은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중다회귀분석에서 남성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지만, 자신이 고수하는 가치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이 연령이 낮은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라는 가치를 고수하는 경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보편적 가치

와 문화특수적 가치가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보편적 가치 중 집단주의는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집단주의가 높아지면서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라는 같은 가치를 고수한다고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렸을 때부터 남성은 경쟁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반면 여성은 협동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서경희, 2008), 남성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성은 부드럽고 배려하는 방식의 표현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겸손은 성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겸손이 높은 경우 겸손이 낮은 경우보다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적게 사용하며, 여성의 경우 겸손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확실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겸손이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논쟁적 의사소통 방식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인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이

전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Park & Kim, 2008).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결과는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자기주장이나 표현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협동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해 온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60·70대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부 하위 척도들 중 신뢰도가 낮은 하위 척도들에 대한 결과는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서적 자기통제와 겸손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는데, 손은정(2019)의 연구에서도 겸손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번안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특수적 가치 척도에 대한 충분한 타당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문화보편적 결과인지 한국의 문화특수적 결과인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결과가 한국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 문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가치에 대해 문화보편적 가치와 문화특수적 가치를 함께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문화보편적 가치나 문화특수적 가치의 일부분만을 포함시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가치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성인의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몇몇 외국 연구에서는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으나(Chin, & Kameoka, 2019; Holtgraves, 1997; Park & Kim, 2008),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치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연령대별 또는 성별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박혜경, 김상아, 2018; 이현영,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와 집단의 이익에 초점을 둔 가치에 해당하는 자기초월이나 정서적 자기통제가 고-맥락 의사소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고양이라는 가치도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개인 초점의 가치뿐만 아니라 규범에 대한 동조와 같은 전통적 가치도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더 자세하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고-맥락 및 저-맥락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자기고양, 규범에 대한 동조, 집단주의, 그리고 겸손에서 연령과 성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가치를 고수하더라도 의사소통 방식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각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의 차이와 성별 차이가 함께 있을 경우(예를 들면 연령이 많은 남성과 연령이 낮은 여성), 서로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더 큰 차이와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이 고수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화하는 것이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치와 의사소통 방식 간의 관계에서 연령과 성별의 역할에 대해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세대 간 그리고 남녀 간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김수정 (2022). 세대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세대, X세대, 그리고 MZ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29-58.
- 김은예, 박용한 (2021). 대학생의 가치와 학업 관련 태도 및 성취의 관계. *교육학연구*, 59(1), 227-258.
- 김해진, 이동훈 (2021). 한국인의 세대별 문화성향 차이와 대인간 의사소통 능력의 특성. *사회과학연구*, 60(3), 455-480.
- 김현동 (2019). 관리자의 성별과 조직우선주의

- 가 의사소통 애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3), 208-228.
- 김장이 (2006). 한국인의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6-109.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남궁은하 (2021). 세대갈등 및 생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93(0), 54-69.
- 류중은 (2021. 4. 6.). 현대차 넘어 확산되는 사무직 노조. ...MZ세대의 반란, 왜.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509280005854?did=NA>
- 박용한, 김은예, 한수연 (2019). 대학생용 가치 척도(K-PVQ-RR)의 타당화. 한국교육문제연구, 37(3), 127-154.
- 박재현, 이유미 (2013). 수사적 민감성 척도를 활용한 세대별 의사소통 양상 분석. 화법연구, 22, 329-354.
- 박재현, 전은주 (2016). 직급과 성별에 따른 직장 의사소통 갈등 요인. 화법연구, 34, 173-201.
-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3), 5-37.
- 서경희 (2008). 성별 의사소통스타일의 습득: 언어사회화 과정. 인문학 연구, 14, 113-140.
- 서신화, 허태균, 한민 (2016). 역올 경험의 과정과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643-674.
- 서지영, 정영숙 (2012).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21-44.
- 손은정 (2019). 슈퍼바이지의 불안정 애착, 역할갈등,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자기개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725-748.
- 손해용 (2021. 2. 6.). “성과급 근거 뭐냐” 대표에 돌직구...MZ세대에 당황한 기업.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mid=sec&sid1=001&oid=025&aid=0003075857>
- 이동원, 조성남 (1991). 부모와 자녀의 세대차이에 관한 일 연구: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9(2), 101-147.
- 이수인 (2010).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한 가족 및 학교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8, 256-299.
- 이현영 (2017).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관리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지, 김수영, & Kobayashi, E. (2014). 연령집단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24.
- 전혜빈, 박혜경 (2018). 사회 계층에 따른 가치 차이: 자기 참조 가치 대 문화 참조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4), 563-592.
- 정순달,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최상진, 김의철, 홍성운, 박영숙, 유승엽 (2000).

- 권위에 관한 한국인의 의식체계: 권위, 권위주의와 체면의 구조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69-84.
- 최정원, 이영호 (2014).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 (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553-593.
- 한상근, 박천수, 박태준, 장주희, 박화춘 (2018).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atkina, A. (2019). Values and communication apprehension as antecedents of conflict styles in intercultural conflicts: A study in Germany and Russia.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6(1), 22-34.
- Boer, D., & Boehnke, K. (2016). What are values? Where do they come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T. Brosch & D. Sander (Eds.) *Handbook of value* (pp.129-151). Oxford University Press.
- Brosch, T., Coppin, G., Scherer, K. R., Schwartz, S., & Sander, D. (2011). Generating value(s): Psychological value hierarchies reflect context-dependent sensitivity of the reward system. *Social Neuroscience*, 6(2), 198-208.
- Chen, J. C., & Danish, S. J. (2010). Acculturation, distress disclosure, and emotional self-disclosure within Asian population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3), 200-211.
- Chin, D. & Kameoka, V. A. (2019). Mentoring Asian American scholars: Stereotypes and cultural valu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9(3), 337-342.
- Foynes, M. M., Platt, M., Hall, G. C. N., & Freyd, J. J. (2014). The impact of Asian values and victim-perpetrator closeness on the disclosure of emotional, physical, and sexual abus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2), 134-141.
- Gao, G. (1998). "Don't take my word for it": Understanding Chinese speaking pract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2), 163-186.
- Gudykunst, W. B. (2001). *Asian American ethnicity and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 Gudykunst, W. B., Matsumoto, Y., Ting-Toomey, S., Nishida, T., Kim, K., & Heyman, S. (1996). The influence of cultur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construals, and individual values on communication styles across cultur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4), 510-543.
- Holtgraves, T. (1997). Styles of language use: Individualism and cultural variability in conversational indirect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624-637.
- Kim, B. S. K., Atkinson, D. R., & Yang, P. H. (1999). The Asian Values Scale: Development, factor analysis,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42-352.
- Kim, B. S. K., Li, L. C., & Ng, G. F. (2005). The Asian American Values Scale-Multidimensional: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1(3), 187-20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ress.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Park, Y. S., & Kim, B. S. K. (2008).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and communication styles among Asi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14(1), 47-56.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chwartz, S. H. (2003). A proposal for measuring value orientations across nations. *Questionnaire Package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259-290.
-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Beierlein, C., ... & Konty, M.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4), 663.
- Schwartz, S. H., Melech, G., Lehmann, A., Burgess, S., Harris, M., & Owens, V. (2001). Extending the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with a different method of measur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5), 519-542.
- Young, I. F., Razavi, P., Cohen, T. R., Yang, Q., Alabèrnia-Segura, M., & Sullivan, D. (2021).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guilt and shame. *Emotion*, 21(1), 108-122.

논문 투고일 : 2023. 02. 09
1 차 심사일 : 2023. 03. 04
2 차 심사일 : 2023. 04. 14
게재 확정일 : 2023. 05. 01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Communication styles of Korean Adults

Eunjung S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s and communication styles of Korean adults. Five hundred adult men and women across the country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regarding cultural universal values (openness to change, self-enhancement, conservatism, and self-transcendence), cultural-specific values (collectivism, conformity to norms, emotional self-control, family recognition through achievement, and humility),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 style, self-enhancement, emotional self-control, and self-transcendenc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Whereas openness to change, self-enhancement, conformity to norms, emotional self-control, and gender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 Second, ag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hancement and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The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level of self-enhancement was high and the age was younger. Third, age and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ormity to norms and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In the case of males with high conformity to norms and younger age, the high-context communication style significantly increased. Fourth,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As collectivism increased, men tended to increase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s, while women tended to decrease it. Fifth,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ility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In the case of women with high humility, their low-context communication style was significantly lower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value, communication style, age, gender, cultural value